
기획논문 1

인도 여성에 대한 연구

— 영국 지배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집담회의 결과물로 영국 지배 시기 인도 여성에 대한 기획논문 네 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 여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육이나 사회 개혁 정책의 대상(object)으로 보거나, 참정권 운동이나 반영 독립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로 보는 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교육이나 재혼 금지와 유아혼 등의 악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벵골(Bengal)과 인도 각지에서 일어난 사회개혁 운동, 인도통치법 개정(1919)에 따른 여성 참정권 요구나 마하트마 간디(Gandhi, 1869-1948)의 사뜨야그라하(satyāgraha) 등 여러 운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습니다.¹⁾ 이와 같은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 개혁가들로부터 영향과 교육, 지원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적인 기록이나 전기, 언론

1) 인도의 여성 운동은 일반적으로 남성 개혁가들이 중심이 되어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과 법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1850년대~1910년대, 민족주의 운동이 여성 운동을 포용하며 여성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활발해졌던 1920년대~1940년대, UN이 제정한 여성의 해 이후 『평등을 향하여』(*Towards Equality*)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다양한 여성 운동이 다시 불붙은 1970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Geraldine Forbes (1996), *Women in Moder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기사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벵골 외에 사회개혁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나 첸나이(Chennai; 舊 Madras) 등에 설립되었던 각 지역의 여성단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전 인도 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영국의 지배와 제국주의에 저항한 방식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식민 통치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성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보적인 여성 운동과 개혁은 소수 엘리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다수 인도 여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²⁾ 사료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여성들이 남긴 잡지 기고문이나 문학 작품, 자서전, 편지, 사진 등 대안적인 사료와 함께 노래와 민화, 구술사 등을 통해 그려진 여성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³⁾ 이에 문학과 역사, 미술사 세 분야에서 각자 연구를 진행하던 네 명의 여성 연구자는 6차에 걸쳐 영국 식민 통치하 인도 여성에 대한 본인의 연구를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오늘날 인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구축된 과정과 그 기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처음 기획하였던 6차의 집담회 중 세 번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발표 외에 젠더와 제3세계 및 인도 여성 연구에서 핵심적인 저술을 읽고 논의할 수 있어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 Mrinalini Sinha (1997), “Gender in the Critiques of Colonialism and Nationalism: Locating the ‘Indian Woman’”, *Feminism and History* (ed. by Joan Wallach Scot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496.

3) Forbes (1996), pp. 5, 6.

본 기획논문 네 편은 지역적·계층적으로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대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우선 구하원은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자이나교 평신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원 건축 후원과 양식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1840년경 자이나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샤프룬자야(Śatruñjaya) 및 자이나교도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아메다바드(Ahmedabad)에 지어진 두 개의 사원을 비교함으로써 여성 후원자들이 전통적인 건축 후원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출한 방식과 그 결과를 고찰하였습니다.

박금표는 전인도 여성협의회(All-India Women's Conference, 1927)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첫 사무총장을 맡았던 까말라데비(Kamaladevi Chattopadhyay, 1903-1988)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여 독립 이전 그녀의 활동과 여성 운동을 통해 볼 수 있는 도전적 젠더 의식을 평가하였습니다. 까말라데비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불구하고 간디와 함께 반영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여러 원인으로 간디와 길항 관계가 발생하면서, 결국 독립 후 정치적 활동을 접고 민간 기구를 설립하여 장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인도의 전통문화 부흥에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엘리트층에 속한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위 두 논문과 달리, 이동원은 데바다시(*devadasi*: 사원에 헌납된 여성) 문학으로도 분류되는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인 『따씨갈 모사발라이』(*Tācika! Mō-cavalai*, 데바다시 기만의 그물, 1936)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 나타난 하층 여성들의 삶과 이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비판을 토대로 식민지 인도에서 형성된 여성 개혁 담론의 지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따씨갈 모사발라이』는 데바다시 출신의 사회개혁가인 무발루르 라마미르담(Muvalur Ramamirtham, 1883-1962)의 반자전적 소설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카스트, 가부장제, 브라흐만주의 등을 비판하며 자아 존중 결

혼을 통해 여성 개혁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은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작동하는 사회질서 속에서 오늘날 인도의 젠더문제가 결국 계급과 젠더, 카스트의 상호작용으로 심화된 결과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대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브라흐만적 가부장제와 식민 통치하 카스트 제도에 내재한 여성억압적인 성격에 주목한 사상가들의 저술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하층 카스트로 태어났으나 서구식 교육을 받고 독특한 입지와 혜택을 누리면서 대표적인 반카스트 운동가이자 법률가, 정치가로 활동했던 암베드카르(B. R. Ambedkar, 1891-1956)가 여성 문제에 대해 지녔던 인식을 평가하였습니다.

인도의 여성 운동은 식민 통치하 엘리트 남성들에 의해 도입 및 확산되었다는 태생적인 한계와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반영 민족주의 운동과 휘말리면서 독특한 성격과 역사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 후에도 인도의 여성 운동은 카스트와 종교 갈등, 빈곤 문제 등 인도 여성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형적으로 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여러 사건에 따른 법 개정 운동과 인도 내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등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명 여성 연구자들의 글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 여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기획의 말을 마칩니다.

구하원

[표기에 대하여]

인도어의 한글 표기는 가능한 한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단어나 지명의 경우, 본래 발음과 차이가 나더라도 기존의 표기를 따라 독자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발음) 산스끄리뜨 / (표기) 산스크리트

(실제 발음) 구자라뜨 / (표기) 구자라트

(실제 발음) 쨌나이 / (표기) 첸나이

(실제 발음) 아요다 / (표기) 아요디아

